

■ 광산구청, 휴일영업 재개 대형마트 단속 현장 가보니

## 보건증·원산지 확인, 불법주차 단속도

완장 부대 40명 투입, 마트 직원들 순순히 응해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단속을 지속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일요일 영업을 계속하겠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 재개 첫 날, 지자체와 대형마트간 충돌이 시작됐다.

22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롯데마트 첨단점, 오전부터 소핑객들로 북적인 가운데 ‘합동점검반’ 완장을 찬 광산구청 직원 20명이 원산지표시·위생 상태 등 집중 단속을 벌였다. 또 다른 20명은 다른 대형마트로 향했다.

수산물 코너 한쪽에선 광산구청 합동점검반이 위생 점검을 하고 있었다. “보건증을 보여달라”는 단속 공무원의 요청에 대형마트 직원들은 순순히 내보였다. 구청이 합동점검 사실을 미리 알린 뒤에 큰 마찰은 없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합법적으로 단속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업체측은 거부할 명분이 없어 적극 협력했지만 이같은 단속이 정례화되는 것 아니냐는 조바심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광산구청도 지난 주말 단속을 예고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 흔적이 역력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대형마트 측이 합동점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고 협조도 잘 해 문제는 없었다”며 “대형마트와 SSM이 휴일 영업을 계속할 경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쇼핑을 하던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합동점검 경위를 지켜보며 관심을 보였다.

임모(38·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는 “지나가다가 ‘정상영업을 한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마트를 찾았다”며

/이민이·최승렬기자 emilee@



어휴~ 시원해 광주·전남 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2일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를 찾은 피서객들이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식하고 있다. /구례=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덥다 더워!… 장마 끝나자 ‘찜통’

광주·전남 폭염주의보·열대야 무더운 날씨에 물놀이 사고도

“덥다 더워!”

장마 물러나고 본격적인 무더위 기승을 부리자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간헐적인 장맛비로 더위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열대야까지 발생하자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또 갑작스런 찜통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과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부쳤다.

무더운 날씨 속 물놀이를 하던 고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4분께 광주시 광산구 본관동 황룡강에서 물놀이하던 윤모(19)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윤군은 이날 친구 6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신발이 물에 떠내려가자 주우려고 갑자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후 6시께 목포시 충무동 동하도 앞 해상에서

황해 중이던 목포선적 3,59t 요트 A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했지만 해경의 신속한 출동으로 승선원 3명 모두가 구조됐다.

병원 관계자는 “불쾌지수나 자외선 지수, 식중독 지수가 높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 물건의 표시 및 매각 조건  
<경매 1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광정평가액 최저매각액 [단위: 원]	비고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m <sup>2</sup> ]		
<b>[단독주택, 다가구주택]</b>				
2012타경 1535	1	전도군 입회면 삼만리 1137-1 443㎡ [물건 대번호: 1호: 수목 및 조경은 매각대상 아님]	313,484,400	일괄매각. 2012년 6월 24일 [방법]
	1	동소 1137-1 총 150.45㎡ 2층 104.4㎡	313,484,400	단독주택
<b>[대지/임야/전답]</b>				
2012타경 2415	1	전도군 의신면 칠전리 산219 3868㎡	2,939,680	임야
			2,939,680	
2012타경 2576	1	한도군 노화읍 등산리 1263-19 334㎡	2,204,400	건물을 매각대상 아님
	2	동소 산253 29752㎡ [김종윤지분2분의1전부]	4,462,800	부묘소재지
2012타경 2897	1	한도군 원도읍 군내리 618-4 112㎡	8,960,000	건물을 매각대상 아님
			8,960,000	임야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액 [단위: 원]	비고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m <sup>2</sup> ]	용도		
<b>[기타]</b>					
2012타경 1610	1	선적항: 완도군 금월읍 선박의 종류와 명칭: 동력선수민호 선질: 애플리프 총선수: 4,30 기관의 종류와 수: 1기밀선선 외기기관 200,000 마력 1대 전수년월: 2008년 7월 8일 제시와 크레인 등 24	선박	24,531,900 24,531,900	선박고장운행불가, 보관장소: 완도군 군내리원수수협 앞 해상
2012타경 2101	1	선적항: 완도군 소안면 선박의 종류와 명칭: 동력선수민호 선질: 애플리프 총선수: 4,80 기관의 종류와 수: 유품: 상자량 용당지질 기관 339.00 마력 1대 전수년월: 2009년 6월 24일	선박	66,012,000 66,012,000	보관장소: 해남군 부평면 남창찰리동 아조선소내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기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특별매각 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
  - 2. 매각기일 : 2012. 8. 6. [월] 10:00
  - 3. 매각기준기일 : 2012. 8. 13. [월] 14:00
  -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 5. 매각방법
    - ① 입찰방법에 비해 편리한 기관이나 조건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입찰하는 경우는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의 기준으로 입찰한 경우는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합니다.
    - ② 입찰방법에 비해 편리한 경우에는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합니다.
    - ③ 입찰방법에 비해 편리한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합니다.
    - ④ 입찰방법에 비해 편리한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합니다.
    - ⑤ 입찰방법에 비해 편리한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합니다.
-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① 최고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출한 다른 매각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정과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 ② 최고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에 대금지급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합니다.

## 술만 마시면 …

동네주민 105명에 행패

관리 대상 60대 구속

일정한 직업이 없어 홀로 살아온 심모(62)씨. 그는 광주시 북구 우산동 일대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매일 기초생활수급 지원자가 지급되는 날이면 술을 마셨고 노인들은 물론 영세식당의 상인들까지 술에 취한 그의 행패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우산동 한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손님 2명을 폭행하고 30여분간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같은 달 18일에는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폭행한 A(여·68)씨 집에 찾아가 ‘너 때문에 벌금이 나았으니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보복했다.

이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경찰에 그를 진정했고, 경찰은 22일 무려 105명에 달하는 동

네 주민을 폭행하고 과태료 혹은 혐의(폭행 등)로 심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심씨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찾아가 B(여·65)씨를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폭행하는 등 수년간 우산동 일대 주민들을 과롭혀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곳에 이사 오기 전 남구에 거주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전과기록만 수십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씨는 광주경찰청이 관리하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 103명의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부터 주취 폭력 등 5대 폭력 혐의를 표방한 가운데 광주 북부경찰은 이달 초 주취전단팀을 구성, 상습주폭자 2명과 영세업소 상대 갈취사범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무원 잇단 자살

광주서 투신·목매

22일 오전 10시22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광주시 한 산하기관의 기능 6급 박모(51)씨가 자신의 집 안방 목욕탕에서 목을 매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119 등에 신고했다.

유씨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박씨는 최근 승진을 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10시49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 앞 바닥에 광주 모 구청 8급 직원 유모(여·26)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유씨는 발견된 주민은 “갑자기 ‘피’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유씨가 이 건물 4층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닌 보고한 교통사고 4173건 중 대형화물차량이 98건으로 2.3%를 차지했으며, 교통사망사고 51건 중 대형화물차량이 6건(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chadol@kwangju.co.kr

골목길 차량 17대 마구잡이 파손

○ 특별한 이유 없이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마구

잡아로 부순 20대가 주민들에게 불려 경찰서행.

○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낙수인 김모(22)씨는 21일 새벽 2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증흥동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을 쓴 채 주차 중인 A(40)씨의 레간자 승용차 유리창을 쇄파해 넣고 차량을 세우고자 했지만 차량이 태워질라고 해 집으로 강제로 데리고 갔다. 성폭행 하려는데 반향을 해 목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통영시 산양읍 통영스포츠파크 근처에서 순찰중이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봉선·방림·주월·효덕·소태·학동도

광주지역 11곳으로 확대

광주시 남구 봉선·방림·주월·효덕·동구·동구 학동·소태동에서도 덤프·레미콘 트럭 등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내에서 대형 차량 등의 운행제한구역이 기존 제1 순환도로 내, 서구 동천·상